

노인복지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 KCI등재 학술지 게재논문(2015~2024)을 중심으로 —

안교철** · 이재모***

•요 약•

본 연구는 노인복지를 주제로 한 국내 학술지 연구물을 통해 노인복지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KCI등재 노인복지연구 학술지 게재논문 417건을 대상으로 연구빈도, 연구유형,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 키워드, 연구 열람빈도, 연구 인용빈도에 초점을 두어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빈도에서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최소 50건 이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코로나 시점 이후 급감하면서 연구 수가 20건에서 40건 내외로 상향과 하향을 반복하고 있다. 연구유형은 양적연구가 많았지만 최근 질적연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연구주제는 노인복지실천 및 노인복지서비스 분야가 높게 나타났고, 그 연구대상으로 당연히 노인 당사자가 많았고, 전문인력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 키워드는 우울, 노인, 삶의 만족도, 독거노인, 사회적지지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열람 및 인용빈도 수는 역시 키워드와 동일한 주제의 연구들이 많았다.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사점과 향후 연구 제언에 대해 논하였다.

주제어 :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학술지, 연구동향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14.3%를 차지하며, 세계에

* 이 논문은 2024년 영남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1저자

*** 영남대학교 국제개발세마을학과 교수 : 교신저자(E-mail: swleejm@yu.ac.kr)

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4년 말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¹⁾ 현재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고령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이런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또한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이른바 초고령화 시기로 접어들었다. 각계각층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²⁾

세계적으로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각 나라마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고민과 대응책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학술적 관심 키워드도 상이할 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질병, 노인관련 문제 등이 부각되어 그에 대한 해결책 및 관련 연구 등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³⁾

이러한 일련의 사회현상으로 노인문제,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노인복지학의 학문적 성장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노인복지연구가 실천적·정책적인 측면이라는 실용적이고 처방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보다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맥락에서 노인복지학의 학문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노인복지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연구빈도, 연구유형,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 키워드, 연구 열람빈도, 연구 인용빈도의 7가지 단위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 제시와 더불어 노인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 노인복지 관련 학술지에 실린 복지 분야의 논문들을 분석하여, 노인복지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핌으로써 더 나아가 추후 한국 노인복지 분야 연구가 담당할 역할과 방향을 정립하고 제안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온라인),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008(검색일: 2024.12.24).

2) 홍영신 외, “초고령 사회 이후 노인 관련 연구 동향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4권 제2호(통권 제62집), 대한건축학회, 2014, pp.79-80.

3) 오상은 외, “체육학에서 노인 관련 연구의 동향 탐색: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 따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제22권, 제4호,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2020, pp.111-121.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노인복지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노인 관련 학술지는 대표적으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년학’, ‘노인간호학회지’, ‘노인정신의학’, ‘대한임상노인학회지’,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 즉 자료는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연구’ 학술지로 선정하였다. 선정 이유는 앞서 언급한 노인 관련 학술지 중 노인복지 측면에서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노인복지와 관련해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연구’ 학술지가 관련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관련 학계에서 검증을 거친 것이고,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를 폭 넓게 살피고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다고 보았다.⁴⁾

분석대상 설정 후 1차적 자료 수집은 한국연구재단 학술논문 DB인 KCI에서 관련 선행연구들을 수집하였으며,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지 못한 논문이나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논문은 2차적으로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또, 교차확인을 위해 학술지 홈페이지를 통해 누락된 논문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417건의 학술논문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출처: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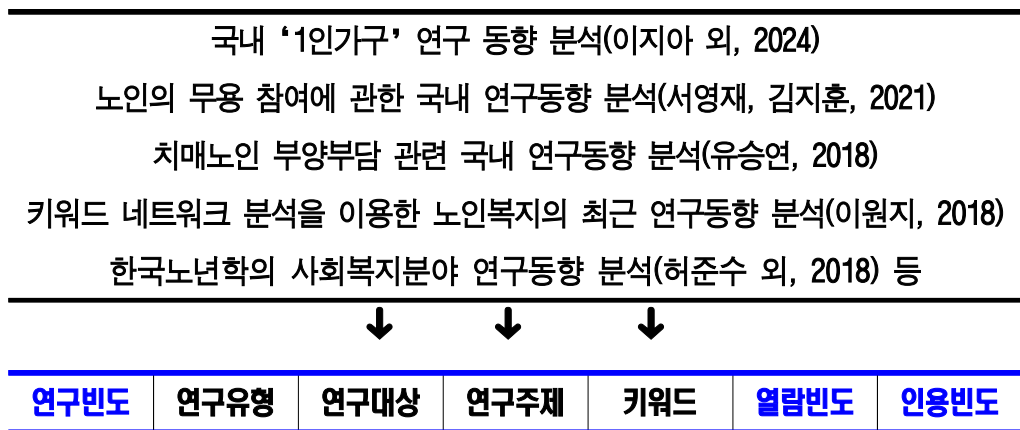
〈그림 1〉 문헌 선정 흐름도

4) 노필순·박병금, “교사의 다문화가정 유아 지도경험에 대한 연구동향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2권 제9호, 한국콘텐츠학회, 2022, pp.644-656.

2. 분류기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동향 분석에 있어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유목을 근거로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자가 분류기준에 따라 직접 코딩하였으며, 이후 공동연구자가 상호 교차하며 검토하였다.

선정된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그 동안 노인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한 대표적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분석틀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출처: 필자 작성

<그림 2> 연구분석틀 선정 흐름도

그 결과 최종적으로 <표 1>과 같은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분석 틀은 크게 '연구빈도', '연구유형',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 키워드', '연구 열람빈도', '연구 인용빈도'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비교적 해당수가 많은 단어 중심으로 분류화하였다.

'연구빈도', '연구 키워드', '연구 열람빈도', '연구 인용빈도'는 최근 10년간의 논문을 검증된 KCI 정보시스템으로 목록화 및 순위화 시켰다.

'연구유형' 세부분류는 노필순·박병금(2022), 장세영·정소라(2023), 이다니엘 외(2023)에서 사용된 기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⁵⁾ '연구대상' 세부분

5) 노필순·박병금, 앞의 논문, pp.644-656.

류는 유승연(2018), 김시영 외(2022)에서 사용된 기준을, ‘연구주제’ 세부분류는 현외성(2009), 홍영신 외(2014)에서 사용된 연구주제별 동향 분류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⁶⁾

〈표 1〉 분석단위 및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분석방법
연구빈도	• 최근 10년(2015년~2024년)의 연간 빈도	KCI 분석정보시스템
연구유형	• 양적연구 • 질적연구 • 혼합연구	선행연구 분석틀에 근거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 노필순·박병금(2022) 장세영·정소라(2023) 이다니엘 외(2023)
연구대상	• 노인(당사자) • 전문인력 • 정책·제도 • 부양가족 • 기타	선행연구 분석틀에 근거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 유승연(2018), 김시영 외(2022)
연구주제	• 노인복지일반 • 노인복지정책과 제도 • 노인복지실천 • 노인복지서비스 분야 • 기타	선행연구 분석틀에 근거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 현외성(2009), 홍영신 외(2014)
연구 키워드	• 최근 10년(2015년~2024년)간 키워드 종합 통계	KCI 분석정보시스템
연구 열람빈도	• 최근 10년(2015년~2024년)간 열람 수 종합 통계	KCI 분석정보시스템
연구 인용빈도	• 최근 10년(2015년~2024년)간 인용 수 종합 통계	KCI 분석정보시스템

출처: 필자 작성

장세영·정소라, “국내 중년 장애인 관련 연구동향분석: 2003년~2022년의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제33권 제2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3, pp.265-289.

이다니엘 외, “고령친화주거 관련 연구동향”, 『한국주거학회 2023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5권, 제2호, 한국주거학회, 2023, pp.323-326.

6) 유승연, “치매노인 부양부담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보건과 복지』, 제20권 제4호, 한국보건복지학회, 2018, pp.29-54.

김시영 외, “「유아교육학논집」 학술지의 연구동향분석: 2006~2021년까지”, 『유아교육학논집』, 제26권 제5호, 한국영유아교육학회, 2022, pp.211-231.

현외성, “노인복지학의 탐색: 노인복지 연구동향과 학문적 과제”, 『노인복지연구』, 2009 여름호(통권 44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9, pp.279-302.

홍영신 외, 앞의 논문, pp.79-80.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인복지연구 학술지에서 발간된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출간된 학술지 논문을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제범위 문헌고찰이란 1차로 관련 연구물들을 수집한 후에 연구의 분량, 성격, 특성 등의 측면에서 관심 분야의 기존 문헌을 연결하는 연구방법이다(Arksey and O'Malley, 2005).⁷⁾ 이와 같은 문헌분석은 특정한 주제나 연구 영역이 포괄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경우에 독립적인 연구로 수행되거나(Grant and Booth, 2009), 체계적 문헌고찰 이전에 연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⁸⁾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대표적인 장점은 기존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선행 연구들에서의 간극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⁹⁾

국내에서도 해당 기법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시의성 높은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청년’을 키워드로 그동안의 청년연구를 종합하고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배정희 외, 2023)와 국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 권우영과 김가은(202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¹⁰⁾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10년 여간 이루어진 노인복지관련 연구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사용하고자 한다.¹¹⁾

또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기법과 더불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 있는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이는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원문) 및 참고문헌을 DB화하여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7) Arksey, H., and O'malley, L.,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vol. 8, no. 1, 2005, pp.19-32.

8) Grant, M. J., and Booth, A., "A typology of reviews: an analysis of 14 review types and associated methodologies", *Health Information & Libraries Journal*, vol. 26, no. 2, 2009, pp.91-108.

고광숙·김성길, "부모의 자아개념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23, pp.7-37.

9) Daudt, H. M., et al., "Enhancing the scoping study methodology: a large, inter-professional team's experience with Arksey and O'Malley's framework",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vol. 13, 2013, pp.1-9.

10) 배정희 외, "청년 연구 동향 분석-주제범위 문헌고찰", 『사회복지정책』, 제50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3, pp.67-101.

권우영·김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연구 동향 분석: 주제 범위 문헌 고찰", 『문화기술의 융합』, 제10권 제2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4, pp.225-236.

11) 이지아 외, "국내 '1인가구' 연구 동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76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24, pp.289-318.

다. KCI의 분석정보서비스는 연구분야별, 발행기관별, 학술지별, 키워드별, 검색어별, 관심정보 연구 동향, 데이터 분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KCI의 분석정보서비스는 국내 학술지 및 게재논문에 대한 각종 학술정보의 제공은 물론이고, 연구자원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인용빈도에 따른 학술지의 영향력을 산출할 수 있어 특정 주제분야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다.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별로 인용한 문헌과 인용된 문헌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연구함으로써 학문분야별 수준의 파악과 연구자의 연구 결과 평가를 위한 계량적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관련분야 연구 동향과 수준확인 및 연구의 효율성 제고, 연구자의 연구의욕 및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각종 연구비 투자 분야 선정이나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며, 나아가 학술 연구의 질적 성장 및 연구력의 획기적인 증대와 국내 학술연구수준 및 국내 학술지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스템으로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¹²⁾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노인복지관련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복지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417건의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연구빈도, 연구유형,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 키워드, 연구 열람빈도, 연구 인용빈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빈도, 연구 키워드, 연구 열람빈도, 연구 인용빈도는 KCI 분석시스템을 사용하여 파악했고, 연구유형, 연구대상, 연구주제는 관련 선행연구 분석틀에 근거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1. 연구빈도

학술지의 발행연도별 연구빈도를 살펴본 결과 2015년 57건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60건으로 나타났고, 2018년까지 최소 50건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시점 이후 발행 논문수가 점차 감소하여, 2019년부

12)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CI 소개”.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검색일: 2024.01.12).

터는 일정기간동안 논문 발행수가 상향과 하향(20~40건)을 반복하고 있다. 연도별 연구빈도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빈도

연도	논문 수(%)	연도	논문 수(%)
2015	57(13.6%)	2020	34(8.1%)
2016	60(14.4%)	2021	24(5.8%)
2017	56(13.4%)	2022	39(9.4%)
2018	54(12.9%)	2023	24(5.8%)
2019	30(7.2%)	2024	39(9.4%)
합계(%) : 417건(100%)			

출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분석정보서비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SereResearchTrendDetail.kci>)

2. 연구유형

학술지 연구들의 연구유형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연구유형은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 따라 설문지를 활용해 기술통계 분석이 이루어진 양적연구와 면접방법 등 귀납적 분석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진 질적연구, 두 가지를 혼용해 사용한 혼합연구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총 417건의 연구 중에서 양적연구는 310건(74.3%), 질적연구는 103건(24.7%), 혼합연구는 4건(1%)으로 나타나 연구유형의 주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유형의 불균형이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최근 질적연구도 다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 연구유형

연도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2015	40	15	2
2016	47	13	-
2017	43	12	1
2018	42	12	-
2019	20	10	-
2020	22	12	-

연도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2021	17	7	–
2022	30	8	1
2023	20	4	–
2024	29	10	–
합계: 417건(100%)	310건(74.3%)	103건(24.7%)	4건(1%)

출처: 필자 작성

3. 연구대상

학술지 연구들의 연구대상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역시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 따라 연구대상을 구분하였는데, 전체 연구 가운데 노인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23건(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67건(16.1%), 정책·제도 대상 41건(9.8%), 부양가족 대상 12건(2.9%) 순이었다. 기타도 74건이 있었는데, 그 대상으로는 베이비부머, 기혼남녀, 대학생, 파킨슨병 환자, 비혼여성, 중년 기혼여성, 타분야 전문가, 은퇴자, 중장년층, 청년 등이 있었다.

이처럼 정책·제도나 부양가족이 연구대상이 되는 연구들의 수는 비교적 미흡하며, 특히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

<표 4> 연구대상

연도	노인(당사자)	전문인력	정책·제도	부양가족	기타
2015	24	10	8	4	11
2016	34	7	3	–	16
2017	31	11	6	2	6
2018	25	10	5	3	11
2019	21	3	4	–	2
2020	20	4	6	1	3
2021	13	3	4	–	4
2022	19	10	1	2	7
2023	19	2	–	–	3
2024	17	7	4	–	11
합계: 417건(100%)	223건(53.5%)	67건(16.1%)	41건(9.8%)	12건(2.9%)	74건(17.7%)

출처: 필자 작성

4. 연구주제

학술지 연구들의 연구주제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연구주제는 노인복지일반, 노인복지정책과 제도, 노인복지실천, 노인복지서비스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동향을 살펴 보았다(현외성, 2009).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실천(36.7%) 및 노인복지서비스 분야(29%)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노인복지일반(12.9%), 그리고 노인복지정책과 제도(11.8%) 순이었다.

분석결과에 나타났듯이 노인복지 관련 연구는 실용적 처방적인 측면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실천학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론이 없는 실천은 실패과정이 많을 수 있고, 실천현장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노인복지연구가 요청된다. 실천이론이 성장하고, 기존 이론을 실천현장에서 검증하고 일반화의 폭을 확장시킴으로써 실천의 효과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론과 학문에도 기여 할 수 있겠다.

<표 5> 연구주제

연도	노인복지일반 (일반, 역사, 인력, 철학, 교육 등)	노인복지정책과 제도 (제도, 프로그램, 행정, 정책, 법률 등)	노인복지실천 (개별·집단지도, 지역사회조직,가 족치료 등)	노인복지서비스 분야 (시설서비스, 치매, 가출, 자살, 봉사 등)	기타
2015	5	11	17	16	8
2016	7	8	18	16	11
2017	8	6	17	21	4
2018	9	9	17	13	6
2019	4	2	15	8	1
2020	7	3	13	9	2
2021	1	4	10	7	2
2022	6	1	17	14	1
2023	2	1	13	8	-
2024	5	4	16	9	5
합계: 417건(100%)	54건(12.9%)	49건(11.8%)	153건(36.7%)	121건(29.0%)	40건(9.6%)

출처: 필자 작성

5. 연구 키워드

학술지 연구들의 키워드 순위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키워드는 KCI 분석정보시스템에서 연구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 논문들의 제목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빈도를 분석한 것을 말한다. 최근 10년간의 노인복지연구 학술지 논문에 출현한 키워드 상위 20건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주요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1	우울	63
2	노인	50
3	삶의 만족도	22
4	독거노인	21
5	사회적 지지	19
6	요양보호사	18
7	자살생각	14
7	질적 연구	14
9	사회참여	11
9	자아존중감	11
11	매개효과	10
11	주관적 건강상태	10
11	여성 노인	10
11	베이비부머	10
15	농촌노인	9
15	현상학	9
15	성공적 노화	9
18	삶의 만족	8
18	인지기능	8
18	삶의 질	8

출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분석정보서비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SereResearchTrendDetail.kci>)

키워드 분석결과를 상위 5건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울’이 63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노인’이 50회로 그 뒤를 이었다. ‘삶의 만족도’가 22회, ‘독거노인’이 21회, ‘사회적

지지’가 19회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으로서의 노인이 연구 키워드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되나 우울이 그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주목해 볼만하다. 최근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중요시 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증명해주는 결과이다.

또 주요 키워드 빈도는 주요 변인에 대한 중요성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번 분석에서 상위 5건 키워드 빈도(175회)가 전체 주요 키워드 빈도(334회)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약 52.4%로 나타나 그 키워드들이 최근 확실한 연구동향 및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6. 연구 열람빈도

학술지 연구들의 열람 빈도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KCI 분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 대상 논문에서 상세정보 열람수 상위 20건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연구 열람빈도

순위	발행년월	권(호)	논문명	열람수	열람률
1	2019.06	74(2)	노년기 삶의 의미와 우울,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비교	3,973	2.09%
2	2020.12	75(4)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고령자 일상생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술사용과 노인복지관 참여 제한을 중심으로	3,317	1.75%
3	2017.09	72(3)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 참여의 매개효과	3,175	1.67%
4	2017.03	72(1)	인지기능 통합프로그램이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2,359	1.24%
5	2017.09	72(3)	해외 고령친화대학 운영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적 함의: 아일랜드 더블린시(市)의 사례를 중심으로	2,156	1.13%
6	2016.12	71(4)	우울형 여성독거노인의 참여활동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독거노인친구만들기 프로그램 체험을 중심으로	2,115	1.11%
7	2016.12	71(4)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독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76	1.09%
8	2015.06	(68)	황혼이혼 여성노인에 대한 사례연구	1,875	0.99%

순위	발행년월	권(호)	논문명	열람수	열람률
9	2016.06	71(2)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독거노인의 관계자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800	0.95%
10	2017.12	72(4)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사회적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1,764	0.93%
11	2015.06	(68)	한국노인의 낙상경험이 사망에 미친 영향	1,754	0.92%
12	2017.09	72(3)	국내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현황 및 특성 분석	1,666	0.88%
13	2017.03	72(1)	주변인의 자살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617	0.85%
14	2016.12	71(4)	성인의 노인인권인식과 노인이미지가 노인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층과 노인동거경험의 조절효과	1,589	0.84%
15	2018.03	73(1)	치매 친화적 환경으로서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정책적 고찰	1,481	0.78%
16	2020.09	75(3)	한국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 인지, 자극, 통합 프로그램 중심으로	1,413	0.74%
17	2017.03	72(1)	동아리활동 참여 노인들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1,235	0.65%
18	2016.09	71(3)	노인학대유형별 노인 및 학대행위자 특성비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분석	1,229	0.65%
19	2021.09	76(3)	노인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수준이 노인낙인에 미치는 영향: 노인과의교류경험의 조절효과	1,201	0.63%
20	2017.06	72(2)	사회적 활동 잠재계층유형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비교	1,185	0.62%

출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분석정보서비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SereResearchTrendDetail.kci)

열람빈도 분석결과 열람수가 많은 논문들은 대부분 키워드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우울’, ‘노인’, ‘삶의 만족도’, ‘독거노인’, ‘사회적지지’와 관련된 논문들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열람된 논문의 열람 수는 무려 4천회에 가까웠으며, 그 논문은 키워드 분석 상위 5개의 단어를 대부분 포함한 논문이었다. 그 다음 높은 수치를 보인 논문의 열람수 역시 3천회를 넘었으며, 상위 5건 논문의 논문열람수는 각각 최소 2천회를 넘었다. 상위 20건의 논문 열람수의 합계는 무려 38,980회로 나타났으며, 상위 5건의 논문 인용수 합계는 14,980회로, 전체 20건 대비 상위 5건의 비율은 38.4%로 확인할 수 있었다.

7. 연구 인용빈도

학술지 연구의 인용 빈도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KCI 분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분석 대상 논문에서 상세정보 인용빈도 상위 20건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연구 인용빈도

순위	발행년월	권(호)	논문명	인용횟수
1	2016.06	71(2)	여성독거노인과 남성독거노인의 관계자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18
2	2020.12	75(4)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고령자 일상생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술사용과 노인복지관 참여 제한을 중심으로	100
3	2017.09	72(3)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 참여의 매개효과	94
4	2019.06	74(2)	노년기 삶의 의미와 우울,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비교	73
5	2015.06	(68)	중고령자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종단 분석	57
5	2016.12	74(1)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독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57
7	2018.09	73(3)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50
8	2016.06	71(2)	독거노인의 사회적 자원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농촌과 도시독거노인 비교를 중심으로-	48
9	2018.03	73(1)	노인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도시와 농촌 지역 비교	47
10	2017.03	72(1)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42
10	2017.06	72(2)	부산지역거주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유형과 우울 및 자기방임 간의 관계	42
10	2017.09	72(3)	노인의 성별차이에 따른 사회활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 9년간의 종단분석	42
13	2015.09	(69)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취업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1

순위	발행년월	권(호)	논문명	인용횟수
13	2016.09	71(3)	노년기의 차별 및 배제 경험에 대한 인식정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1
15	2016.09	71(3)	시설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슈퍼비전 소진과의 관계: 직업정체성의 매개효과	40
16	2015.12	(70)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39
17	2016.03	71(1)	사회적자본과 건강행태가 노년기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가구 노인과 일반가구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궤적에 대한 비교	38
17	2016.03	71(1)	노인의 정보기술 이용여부와 이용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38
17	2016.09	71(3)	노인의 취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	38
20	2016.06	71(2)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의 효과 비교	37

출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분석정보서비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SereResearchTrendDetail.kci)

인용빈도 분석결과 인용수가 많은 논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키워드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우울’, ‘노인’, ‘삶의 만족도’, ‘독거노인’, ‘사회적지지’와 관련된 논문들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의 인용 횟수는 무려 118회였으며, 그 논문은 키워드 분석 상위 5개의 단어를 역시 대부분 포함한 논문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인 논문의 인용수는 100건, 다음으로는 각각 94건, 73건,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건의 논문 인용수의 합계는 1,082회로 나타났으며, 상위 5건의 논문 인용수 합계는 442회로, 전체 20건 대비 상위 5건의 비율은 40.9%로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시사점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회가 변동하고 노인복지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점은 과거 ‘단순 지원대상’ 혹은 ‘사회적 약자’로 사회문제에 의해 피해를 입는 집단에서 이제는 ‘정책 참여자’로서 노인집단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 전

반의 인권 의식 증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노인들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와 노인복지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노인 관련 학과가 출현하고,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년학회 등 학회도 설립되었으며,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도 창설되면서 이론과 실천에 박차를 가했다.¹³⁾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노인복지연구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복지 관련 연구빈도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관련 필요성을 고취시켜 이를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10년간 연구수가 급격히 준 2019년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연구 수는 227건이고, 2019년 이후 2024년까지 6년간의 연구 빈도수의 합은 190건으로, 최근 6년간의 합이 지난 4년간의 합보다 37건 적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이때 고령사회와는 또 다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나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연구 확대는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철과 이평화(2023)는 한국사회의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로 발생한 노인 관련 사회문제가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노인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노인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노인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가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노인의 빈곤, 치매, 학대, 자살, 여가, 일자리, 주거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그리고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언급했다.¹⁴⁾ 또한 이성호(2024)의 연구에서도 고령화 및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인구의 절반이 노인으로 구성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노인복지 정책 중 일부 분야의 연구와 지원은 이미 많이 이루어졌지만, 노인의 욕구와 빈곤, 차별, 학대, 주거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인식 연구는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¹⁵⁾ 뿐만 아니라 김철중(2023)도 초고령

13) 현외성, 앞의 논문, pp.279-302.

14) 김영철·이평화, “초고령사회 노인의 경제적 배제 극복을 통한 인간관계만족도 증진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8권 제4호, 산업진흥원, 2023, pp.123-129.

15) 이성호, “초고령사회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 『한국과 세계』, 제6권 제5호, 한국국회학회, 2024, pp.349-376.

사회를 맞이하는 한국사회가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 비해 의료 및 복지 대비 전환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와 복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관련 정부기관이 미래 비전을 갖고 타임테이블을 맞춰 초고령사회 체제 보건·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¹⁶⁾

이 밖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지속적인 노인복지 관련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위한 지속적 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연구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연구자들이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단순히 연구가 수치적으로만 늘어나야 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연구 키워드의 다양성도 확보해야 한다. 사람들의 욕구와 문제가 점차 다양화되는 이 시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를 통해 향후 미래 사회의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경래 외(2020)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의 노인 집단은 단순히 취약계층의 하나로 치부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단순한 노인인구 규모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세부 특성을 지닌다고 했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해 오면서 노인 집단의 특성은 점차 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는 초고령사회에 이르는 기간동안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분화 과정을 거쳐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 보았다. 이에 따라 맞춤형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 집단의 다양성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초고령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연구 방향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¹⁷⁾ 이태운(2024)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했으며, 조경환(2024)도 인구의 고령화(고령화, 초고령화)는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저하, 노동력 부족 등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인 노인 부양비 상승과 의료 및 복지비용 증가를 초래한다고 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¹⁸⁾ 뿐만 아니라 지윤호와 김영준(2025) 연구에서도 인구 고령화는 거의 모든 국가

16) 김철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의료정책포럼』, 제21권 제1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3, pp.24-28.

17) 김경래 외,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양성과 사회정책적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5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p.3-6.

18) 이태운, “초고령사회 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복지주택 입주선호요인 분석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35권 제5호, 한국주거학회, 2024, pp.65-77.

조경환, “초고령사회 복지서비스를 위한 노인스포츠 발전 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제33권 제5호, 한국

에서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대응을 요구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노동력 감소, 의료비 증가, 사회적 부양 비용 확대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¹⁹⁾

본 연구의 키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노인복지 연구의 주요 키워드는 우울, 독거노인,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등으로 중심화된 노인 관련 문제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해당 문제들에 대한 복지 문제 검토와 개선 방안 발굴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초고령사회라는 배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대상자와 연구유형 구성의 시각적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 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노인 당사자를 복지 문제 해결의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왔으나, 분석결과, 특히 부양가족은 현 문제를 최전선에서 맞이하는 핵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큰 문제이다. 부양문제는 단순히 노인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도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부담을 안겨준다. 따라서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김은정(2023)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부양 이슈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또한 부양자 고령화 현상이 확대되어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부양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과 더불어 가족 갈등을 초래하고 있지만 관련 학술적 논의는 드문 편이라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²⁰⁾ 또한 이영만과 신동열(2020)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족부양 부담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높은 반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양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이 부양과정에서 겪는 실존적 자기인식 경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²¹⁾ 이영선과 정구철(2020)은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은 부양가족 개개인의 삶의 질과 가족 전

체육과학회, 2024, pp.506-522.

19) 지윤호·김영준, “초고령사회, 에이징테크에 대한 인식과 기대”,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25, pp.119-131.

20) 김은정, “초고령 노부모를 부양하는 노인 자녀의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64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3, pp.57-81.

21) 이영만·신동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5권 제2호, 산업진흥원, 2020, pp.41-50.

체의 삶의 질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 차원의 대처보다는 가족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양가족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과 가족의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²²⁾ 서영식과 이윤정(2021)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노인의 돌봄은 대부분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가족구성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핵가족화와 저출산, 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으로 가족 지지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사회적 차원의 공식적 지지자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사회적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²³⁾

이처럼 부양가족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양적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처럼 면담이나 구체적 사례 등을 활용한 귀납적 방법을 통한 질적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되고 있다. 귀납적 사고는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유형은 여전히 양적연구가 압도적이지만, 최근 들어 질적 연구의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질적 연구는 해당 계층의 어려움과 해결책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와 혼합된 연구유형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 부양자의 부양 부담 실태 분석 및 점점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에 따른 연구가 질적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유형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주제의 초점 변화가 필요하겠다. 분석결과, 연구주제는 대부분 노인복지실천 및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반면에 노인복지정책과 제도, 노인복지 일반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복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협소적이고 부분적이거나 지엽적인 연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은 국가 정책이나 제도에 있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안으로는 정책 및 제도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훈(2024)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 및 복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22) 이영선·정구철, “장기요양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삶의 질 간의 관계: 가족탄력성과 부정정서의 매개 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5권 제4호, 한국웰니스학회, 2020, pp.681-693.

23) 서영식·이윤정, “치매의 증상 정도가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비공식적 지지 및 공식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제26권 제4호,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21, pp.519-551.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대, 지역 경제의 약화, 인구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²⁴⁾ 이희성과 권순호(2020)는 세계에서 국민경제 수준이 10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모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실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노인복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⁵⁾ 정순돌(2024)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있어 노년층의 여러 욕구가 표출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 시점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 다양한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그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²⁶⁾

특히 초고령사회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친 광대한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점 해결은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주를 이룰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 기초연금 등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효과성 검토 및 개발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방적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연구(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가 필요하겠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문제 발생 후 대안을 모색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노인복지 문제만큼은 사전에 예방적이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선도적인 복지 실천 영역으로 나아갈수 있을 것이다.

현재 초고령사회가 되고, 인구고령화가 여전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 관련 연구의 자료는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이다. 따라서 초고령사회의 연구동향에 대해 단정짓기는 쉽지 않다. 이번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할수 있었으나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 관련 연구의 키워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 동향의 확인과 유망한 지식에 대한 탐색 등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 관련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관련 연구가 나아갈 학문적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4) 이승훈,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개편 방안: 공동사무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115권, 법학연구원, 2024, pp.289-320.

25) 이희성·권순호,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제50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pp.1-29.

26) 정순돌,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방향성 탐색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5권 제3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24, pp.3-24.

참고문헌

- 노광숙·김성길, “부모의 자아개념 관련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23.
- 권우영·김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연구 동향 분석: 주제 범위 문헌 고찰”, 『문화기술의 융합』, 제10권 제2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4.
- 김경래 외, “초고령사회 노인의 다양성과 사회정책적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5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p.3-6.
- 김시영 외, “『유아교육학논집』 학술지의 연구동향분석: 2006~2021년까지”, 『유아교육학논집』, 제26권 제5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2.
- 김영철·이평화, “초고령사회 노인의 경제적 배제 극복을 통한 인간관계만족도 증진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8권 제4호, 산업진흥원, 2023, pp.123-129.
- 김은정, “초고령 노부모를 부양하는 노인 자녀의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64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23, pp.57-81.
- 김철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의료정책포럼』, 제21권 제1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2023, pp.24-28.
- 노필순·박병금, “교사의 다문화가정 유아 지도경험에 대한 연구동향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2권 제9호, 한국콘텐츠학회, 2022.
- 배정희 외, “청년 연구 동향 분석-주제범위 문헌고찰”, 『사회복지정책』, 제50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3.
- 서영식·이윤정, “치매의 증상 정도가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비공식적 지지 및 공식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제26권 제4호,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2021, pp.519-551.
- 서영재·김지훈, “노인의 무용 참여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제30권 제3호, 한국체육과학회, 2021.
- 오상은 외, “체육학에서 노인 관련 연구의 동향 탐색 :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 따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제22권, 제4호,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2020.
- 유승연, “치매노인 부양부담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보건과 복지』, 제20권 제4호, 한국보건복지학회, 2018.
- 이다니엘 외, “고령친화주거 관련 연구동향”, 『한국주거학회 2023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5권, 제2호, 한국주거학회, 2023.
- 이성호, “초고령사회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 『한국과 세계』, 제6권 제5호, 한국국회학회, 2024, pp.349-376.
- 이승훈,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개편 방안: 공동사무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115권, 법학연구원, 2024, pp.289-320.
- 이영만·신동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산업진흥연구』, 제5권 제2호, 산업진흥원, 2020, pp.41-50.
- 이영선·정구철, “장기요양노인 부양가족의 부양부담과 삶의 질 간의 관계: 가족탄력성과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5권 제4호, 한국웰니스학회, 2020, pp.681-693.
- 이원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노인복지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 제10권 제2호,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2018.
- 이지아 외, “국내 ‘1인가구’ 연구 동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76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24.
- 이태운, “초고령사회 베이비부머세대의 노인복지주택 입주선호요인 분석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35권 제5호, 한국주거학회, 2024, pp.65-77.
- 이희성·권순호,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제50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pp.1-29.
- 장세영·정소라, “국내 중년 장애인 관련 연구동향분석: 2003년~2022년의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제33권 제2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3.
- 정순돌,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방향성 탐색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5권 제3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24, pp.3-24.
- 조경환, “초고령사회 복지서비스를 위한 노인스포츠 발전 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제33권 제5호, 한국체육과학회, 2024, pp.506-522.
- 지윤호·김영준, “초고령사회, 에이징테크에 대한 인식과 기대”,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25, pp.119-131.
- 허준수 외, “한국노년학의 사회복지분야 연구동향 분석: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노년학』, 제38권 제3호(통권 제103집), 한국노년학회, 2018.
- 현외성, “노인복지학의 탐색: 노인복지 연구동향과 학문적 과제”, 『노인복지연구』, 2009 여름호(통권 44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9.
- 홍영신 외, “초고령 사회 이후 노인 관련 연구 동향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4권 제2호(통권 제62집), 대한건축학회, 2014.
- Arksey, H., and O'malley, L.,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vol. 8, no. 1, 2005.
- Daudt, H. M., et al., “Enhancing the scoping study methodology: a large, inter-professional team's experience with Arksey and O'Malley's framework”,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vol. 13, 2013.
- Grant, M. J., and Booth, A., “A typology of reviews: an analysis of 14 review types and associated methodologies”, *Health Information & Libraries Journal*, vol. 26, no. 2, 2009.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CI 소개”,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검색일: 2024.01.12).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분석정보서비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SereResearchTrendDetail.kci>(검색일: 2025.03.04).
-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온라인),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8(검색일: 2024.12.24.).

【 Abstract 】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n Welfare for the Elderly
: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KCI Listed Journals (2015~2024)**

An, Gyo-cheol · Lee, Jae-m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related to elderly welfare and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rough domestic academic journal research on the subject of elderly welfare. To this end, 417 papers published in the KCI-listed Senior Welfare Research Journal over the past 10 years from 2015 to 2024 were analyzed focusing on research frequency, research type, research target, research topic, research keyword, number of research views, and number of research cit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t least 50 studies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since 2015, but as the number of studies has decreased sharply since the COVID-19 period, the number of studies has repeatedly increased and decreased from 20 to 40. As for the types of research, there were many quantitative studies, but the trend of qualitative research is also increasing a lot recently. There were many research topics in the field of elderly welfare practice and elderly welfare service, of course, the elderly were the main research subjects, followed by professional manpower. The research keywords were depression,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social support, and many studies also used the same topic as the frequency of reading and cit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of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recently, major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rend analysis.

Key Words : Super-aged Society, Welfare of the Elderly, Journal, Research Trends

• 논문투고일 : 2025년 4월 7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5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5월 17일

